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발행인 : 박종헌
E-mail: kafva-airforce@naver.com

편집인 : 박수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발전협회 제14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위기의 시대, 자주국방을 위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회장 박종헌)는 5월 20일(수) 서울 공군호텔에서 '위기의 시대, 자주국방을 위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은기·이영수 역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원로와 예비역 장성, 그리고 국방대학교, 한국국방기술학회, 방위산업체 등 산·학·연·정의 안보 전문가 15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뜨거운 논의를 펼쳤으며, 특히 공군 정책실장, 항공우주전투발전단장, 항공우주안전단장 및 예하 비행단 일선 조종사 등 많은 현역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회의의 서막을 연 박종헌 공군발전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국제 안보환경을 '예측 불가능한 격랑'으로 규정했다. 박 회장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는 공중과 우주 공간 지배에 달린 만큼, 한반도 환경에서 '먼저 보고, 빨리 결심하며, 정확하게 타격하는' 독자적 항공우주 능력을 보유해야만 완벽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대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성일종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적대관계를 공식화한 북한이 러·중과 연대하는 상황에서 AI와 우주력을 국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입법과 예산 측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부승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

사) 역시 서면 축사에서 "동맹의 선의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자주국방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격변의 시대, 자주국방과 항공우주력'을 주제로 군 청사진을 제시했다.

손 총장은 "미래전은 누가 더 먼저 보고, 연결하며, 결심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며, "자주국방은 동맹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을 넘어 첨단과학기술과 방산 역량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군이 차세대 패러다임을 주도할 핵심 과제로 AI 기반 수집관리 및 표적처리체계 구축, 저비용 소모성 무인전력 확보, AI 조종사 및 무인 전투비행대대 개념 발전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영기 LIG D&A 미사일시스템 대공체계연구소장은 한국

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5~150km 전 고도를 방어하는 독자적 다층 방어망으로 고도의 거부적 억제력(Deterrence by Denial)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THAAD와 PAC-3 사이의 방어 공백을 해소하는 차세대 핵심 자산으로 L-SAM-II를 소개하고, 군집 드론과 같은 소모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출력 레이저, EMP, CIWS-II 등 저비용 요격 수단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교수는 핵무장한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딜레마와 관련, 국방분야 AI 전환(AX)과 비핵전략무기(NNSW) 기반의 3축 체계를 제안하였다.

송영훈 예비역 준장은 현재 한국군이 추진 중인 425 사업과 초소형 위성 체계의 한계로 정보기관 주도의 분산 운영에 따른 정보 전달 시차를 지적하면서 전시 및 비상 시 공군 작전사령부가 직접 위성 데이터를 수신·처리할 수 있는 '상용 위성 직수신 시

스템(DAP)'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AI 기반 자동 표적 인식(ATR) 도입을 위해 낡은 군사 보안규정을 개정하고 노후 영상을 민간 AI 학습용으로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형수 전 공군작전사령관,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 권혁철 한겨레 선임기자가 AI 오류나 오판 가능성 우려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신기술 플랫폼 도입 자체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 군의 영역다툼을 경계하고 공군이 우주분야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선도부대(Leading Force)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을 종합한 정한범 사회자는 이번 학술회의가 단순히 이론적 토론을 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AI 전환(AX), 우주로의 전장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평가로 회의를 마감하였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KTX/SRT 통합 예매 : 고속철도 통합앱 출시, 예매가능 시점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
- 암표거래 전면 금지 : 7월 28일부터 암표거래 전면 금지(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 통신 최적요금제 자동 안내 : 10월부터 통신 3사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자동 안내
- 재난 문제 개선 : 10월부터 자세한 정보(글자수 한도 90자에서 157자로 증가) 및 중복알림 방지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7월 20일부터 자녀 질병, 사고 등 필요 시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휴직 가능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실시간 환율로 외환 거래 가능
-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 출국할 때 산 면세품 교환 시 면세한도(800달러) 내 세관신고 불필요

제71회 현충일 추모 합동참배 거행



공군전우회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월 5일 국립서울현충원 충훈탑에서 공군 예비역 합동참배를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헌 전우회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및 군 원로, 공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단체 임원 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 묵념으로 순국선열을 추모한 뒤, 옛 전우들의 연고 묘역을 개별적으로 찾아 참배했다. 박종헌 전우회장은 방명록에 “조국의 평화와 영공 수호를 굳건히 하는 공군전우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숭선수범을 보여주신 원로 선배님들 덕분에 이번 참배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박종헌 회장, 제254기 부사관 임관식서 ‘보라매상’ 수여

본회 박종헌 회장은 4월 29일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된 ‘제254기 공군 부사관 임관식’에 참석해 영공 수호의 주역으로 거듭난 신임 부사관들을 격려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 회장은 타의 모범이 된 노희준 하사에게 공군전우회 장상인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3개월간의 고강도 훈련을 마친 431명(여군 81명)이 정예 부사관으로 임관했으며, 일가친척 10명이 모두 공군 부사관 출신인 진재호 하사의 사연 등이 화제를 모았다.



제2회 공군발전 협력업체 세미나 성료

공군발전협회는 5월 7일 성남 체력단련장에서 ‘제2회 공군발전 협력업체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공군본부 및 방위사업청 핵심 간부, 예비역,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군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호 현안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시너지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종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무인시스템이 주도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이번 세미나가 강한 공군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협업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공군 발전을 위한 굳건한 결속을 다지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30대 공군전우회 회장단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6일 공군 호텔에서 전우회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다지는 ‘제30대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부회장 및 임직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임증 수여와 개인 소개, 전우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오찬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우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중책을 수락해 주신 임원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랜 기간 쌓아온 훌륭한 경륜과 지혜를 아낌없이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0대 회장단은 앞으로도 전우회 발전과 회원 간의 끈끈한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故 김신 장군 추모식 참석

본회 박종헌 회장은 5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된 제6대 공군참모총장故 김신 장군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애국·호국 정신을 기렸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故 김신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다. 6·25전쟁 당시 저공침투비행으로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을 대성공으로 이끈 전쟁 영웅이며, 제6대 총장 재임 시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평생을 헌신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헌 회장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차관, 공군참모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미 공군 협력과 조국 영공 수호에 헌신한 장군의 고귀한 뜻을 함께 추모했다.



공군참모총장, 공군전우회 방문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4월 15일 공군전우회를 방문해 박종헌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손 총장은 현장 중심의 부대 순회와 조종사 인사관리 등 공군 주요 동정을 공유하며, 군이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지원하는 전우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전우회는 5월 20일 개최될 제14회 안보학술회의 참모총장 기조연설과 사천에어쇼의 국제적 기반 마련 등에 협조를 구했다. 또한 일본 츠바사회 방문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총장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며 현역과 예비역 간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공사총동창회 임원진, 본회 방문 및 환담

4월 15일, 황성진 공사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본회를 예방해 제30대 박종헌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환담에서 황 회장은 “전우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비역으로서 모군을 후원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총동창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화답하며 전우회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모군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든든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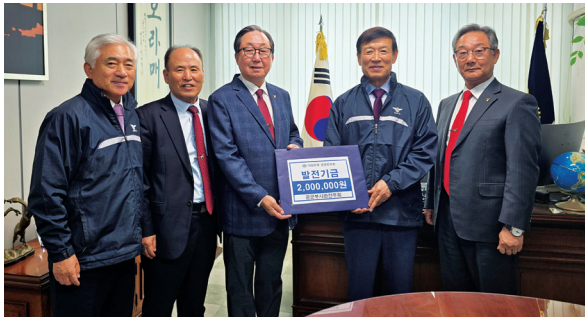


공군부사관전우회, 본회 방문 및 발전기금 전달

본회 산하 공군부사관전우회(원우회) 차주성 회장과 회장단 일행이 지난 5월 6일 본회를 예방해 박종헌 회장에게 전우회 발전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차 회장은 부사관회의 주요 활동 사항과 현안을 보고하며 중앙회 임원진과 환담을 나눴다.

이에 박 회장은 “전투부대 위문과 자체 행사 등 활발하게 운영되는 부사관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장단을 구심점으로 삼아 단체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항공우주안전단장, 회장 취임축하 예방

박대준 항공우주안전단장이 지난 4월 1일, 박종헌 신임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전우회 사무실을 예방했다.

이날 3명의 참모와 함께 방문한 박 단장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첫날 찾아주어 고맙고, 항안단장병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최근 ‘항공우주안전단’으로 부대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며 그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것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풍산 임원진 본회 내방, 협력 방안 논의

(주)풍산 조병규 상무 등 임원진이 지난 4월 15일 공군전우회를 내방해 박종헌 회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탄약 및 소재 분야 핵심 기업인 (주)풍산은 현재 공군에 근적외선 섬광탄과 항공기 기총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KF-21 개발과 연계된 자사 사업 분야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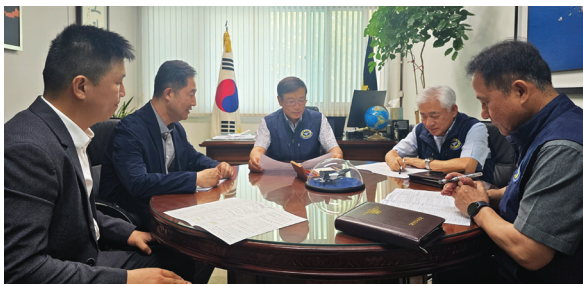
양측은 방산 시장의 주요 동향을 공유하며 민·군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주)풍산은 협력업체 세미나 등에도 참석하여 전우회와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에어쇼기획실 본회 방문, ‘사천에어쇼’ 계획 보고

공군본부 에어쇼기획실(실장 진원창 대령)이 지난 6월 15일 본회를 방문, ‘2026 사천에어쇼’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에어쇼는 ‘국제적 에어쇼 도약의 원년’을 목표로 세계 공군지휘관회의와 우주항공방위사업전 등을 대규모로 진행한다. 이에 본회는 사천 호국영령추모행사 및 KAI 방문과 연계한 에어쇼 참관을 계획 중이며, 기획실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회 박종헌 회장은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의 믿음직한 모습을 널리 알리고, 국내 방산 마케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 소식

대통령, 연평부대에서 우리 군 미래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으로 형평을 이룰 것”이라며,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해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전문 간부 및 모병제 중심의 미래지향적 강군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된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확고한 안보관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병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K9A1 자주포 시찰과 평화전망대 방문을 통해 굳건한 전방 수호 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국방부,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국방부는 5월 26일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인 ‘장보고 N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민간 원자력과 조선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결집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다.

국방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장주기 원자로를 탑재해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추진잠수함이 도입되면 장기간 잠항 능력과 기동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높은 수준의 국제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5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결속을 다졌다.

안 장관 취임 후 첫 방미인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핵심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의 국방비 증액과 주도적 방위 노력을 강조했으며, 미측은 이를 ‘진정한 부담 분담’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회담 후 안 장관은 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해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한층 격상된 한미 연합대비태세 구축이 기대된다.



KF-21 ‘보라매’,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방위사업청은 5월 7일, 한 국형 전투기 KF-21이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체계 개발 착수 11년 만의 쾌거로, 독자적인 영공 방위의 새 시대가 열렸다.

KF-21은 5년간 1,600여 회의 무사고 비행과 1만 3,000여 개의 시험조건을 통과하며 완벽한 작전운용 성능을 입증했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오는 9월 1호기 전력화를 목표로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2028년까지 총 40대가 우선 전력화되어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눈부시게 활약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4월 2일,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하며, 오랜 기간 정제됐던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다. 이번 선정은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 국방부는 지난해 구성된 범정부 전담 TF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선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음 및 이주 대책 등 지역사회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향후 국방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이뤄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체계적인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장관, 공군 전 대대장 대상 특별강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월 7일 공군 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전(全) 공군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 특별강연을 가졌다.

안 장관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을 화두로 삼아 기본과 원칙의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지휘관은 부대원을 감성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리더십을 역설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숭고한 존재”라며 공군 핵심 지휘관들의 사명감을 일깨웠다. 강연 후 안 장관은 기지 내 유류 저장시설을 점검하며 빈틈없는 관리로 완벽한 작전지속 능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최초 전략급 MUAV 1호기 출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가 4월 8일,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방사정장 주관 아래 첫선을 보였다.

90%의 국산화율을 달성한 MUAV는 고성능 센서를 탑재해 적 전략표적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최초의 전략급 무인기다.

공군은 이번 출고를 “유·무인 복합체계의 위대한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작전의 속도와 정확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MUAV는 엄격한 수락시험을 거쳐 2027년부터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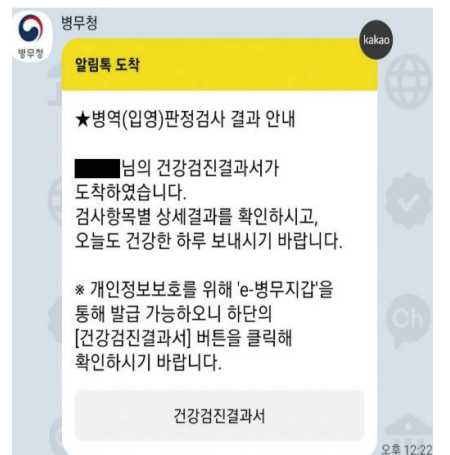


병무청, 병역판정 검진결과 모바일 발급 시행

병무청은 6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은 종이 출력의 불편함 없이 ‘알림톡’과 ‘e-병무지갑’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혈액·방사선 등 35종 58개 항목을 정밀 검사하는 병역판정검사는 19세 청년들의 ‘생애 첫 건강검진’으로서 숨은 질병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매년 약 44만 명의 청년들이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디지털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강군 위용, 2026 합동화력훈련 성료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우리 군의 압도적 위용을 과시한 ‘2026 합동화력훈련’이 5월 28일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성공리에 거행됐다.

이번 훈련은 ‘AI 기반 킬 웹(Kill Web)’ 체계를 적용해, 표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수초 내에 이뤄지는 미래 전장의 모습을 완벽히 구현했다. 특히 공군은 E-737과 RF-16의 신속한 표적 감시를 바탕으로 F-15K, KF-16, FA-50이 맹렬한 공중 화력을 투사하며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훈련의 대미는 ‘자주국방의 상징’ KF-21이 창공을 웅장하게 가르며 장식했다. 다변화하는 미래 전장 속에서도 ‘발견 즉시 타격(Sensor to Shooter)’하는 능력을 확실히 증명하는 훈련이었다.



군 정보기관 대대적 개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국방부가 6월 10일, 국군 방첩사령부를 전면 해체하고 정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고강도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7월 말까지 방첩·보안을 전담할 ‘국방방첩본부’와 내부 보안을 맡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신설되며, 안보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특히 과거 정치 개입 논란의 핵심이었던 동향조사와 세평 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되며, 외부 인사 감찰실장 임명,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 신설 등 강력한 외부 통제 장치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권력화와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202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성료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202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160여 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양질의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AI 체험관’을 최초로 도입하고, 단기복무 간부를 위한 ‘현장매칭관’을 신설해 군에서 체득한 리더십과 실무 역량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받도록 했다.

오프라인 행사 외에도 전용 누리집(motijobfair.com)을 통해 상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일 국방장관, 미래지향적 국방협력 강화 합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월 28일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서울에서 11년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 1월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전개 중 일본 나하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일본 ‘블루임펄스’와의 교류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한·일 수색구조작전(SAREX) 발전, 국방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굳건한 한·미·일 안보 공조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